

문화탐방

제주의 고유 개 [浦·浦口]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오 창 명

1. 머리말

우리말에 ‘개’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자어 ‘포(浦)나 ‘포구(浦口)’라는 말에 밀려서 잘 쓰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고유 지명에서는 여전히 우리말 ‘개’가 흔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개’와 ‘포구’, ‘포’의 뜻과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

개 :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방언 : 개꼴, 개맛, 개포.

포구(浦口) :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유의어 : 항구(港口).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개 : 강이나 하천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포구(浦口) :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

浦(포) : 개. ㉞ 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 비슷한 말 : 浦口(포구). ㉞ 물가. 바닷가.

浦口(포구) : 개의 어귀.

〈동아한한대사전, 동아출판사〉

위 두 종의 국어사전을 통하여 우리말 ‘개’와 한자어 ‘포구(浦口)’의 뜻을 비교해

보면, ‘개’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하고, ‘포구(浦口)’는 “개의 어귀”로서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가 ‘포구(浦口)’보다는 더 넓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한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더라도, ‘浦口(포구)’보다는 ‘개’의 뜻에 대응한 浦(포)가 더 넓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자구넷개(자구내 포구)

제숫말에 쓰이는 ‘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기 는 하지만, 지형상 한자어 ‘만(灣)’의 뜻(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들어 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의 ‘물굽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바다가 육지 속으로 활동처럼 휘어들어온 곳을 뜻하는 것이 ‘개’라는 말이다.

제주도에는 강이 없다. 다만 건천(乾川)이라 할 수 있는 ‘내’만 있는데, 이 내 하류는 당연히 ‘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내 하류가 아니더라도 바다가 육지 속으로 활동처럼 휘어들어온 곳이 많다. 이러한 곳은 모두 ‘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는 대부분 ‘○개’ 또는 ‘○○개’

라 부르는 지명이 붙어 있다.

이 ‘개’에는 예로부터 ‘테우(테위·터위: 떼배.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썼음.)’ 따위의 작은 배들을 대거나 정박(碇泊)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포구 역할도 했다.

그러나 바닷가에 험한 바위들이 깔려 있기도 하고 수심이 얕아서 조금 큰 배들은 이러한 ‘개’에 대거나 정박할 수가 없다. 당연히 험한 바위가 많이 깔려 있지 않으면서 수심이 깊어서 큰배가 걸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천연적인 곳을 찾아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러한 포구를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이용했다. 지형이나 지질에 따라서 바위를 깨기도 하고 돌담을 쌓기도 해서 배가 드나들기 편하게 하고, 정박할 수 있는 포구를 조성했는데, 이 포구도 제주에서는 ‘개’라 불렀다. 한편 ‘개’와 같은 뜻으로 ‘개맛·개맞디·갯마리·갯머리’, ‘개창’, ‘성창’ 등도 쓰였다. ‘개맛’은 ‘개+맛(가까운 곳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의 구성이고, ‘개창’은 ‘개+창(艙: 물가에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의 구성으로 만든 말이다. ‘성창’은 ‘선창(船艙)’의 변음인데, 城艙(성창)으로 쓰기도 했다.

한편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활동처럼 휘어들어 온 곳만 ‘개’라고 하지 않고, 한자어 浦(포)의 뜻과 같이 ‘물가’나 ‘바닷가’를 뜻하는 말로도 ‘개’가 쓰였다. 이때는 ‘갯궂’ 또는 ‘갯궂디’, ‘갯갯’, ‘갯갯디’, ‘갯갯이’ 등과 같이 합성어를 이루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내의 하류에 형성되는 있는 개는 ‘내의 끝’이라는 뜻으로 ‘내깍’이라 부르기도 하고, ‘개의 끝’이라는 뜻으로 ‘개깍’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깍’은 서귀포시 하예동 바닷가의 ‘개깍’이 대표적이고, ‘내깍’은 성산읍 신천리와 표선리 하천리의 천미천 하류가 대표적이는데, 이 ‘내깍’은 요즘은 소리가 변하여 ‘내끼’라 하고 있다.

표준어나 제주말에 쓰이는 ‘개’는 중세국어가 그대로 이어져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중세국어에 일반적으로 쓰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인 고려시대나 삼국 시대에도 이 ‘개’가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세종 27년(1445)에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지어 세종 29년(1447)에 간행한 약장의 하나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말들을 확인할 수 있다.

金谷浦 김곡개……助邑浦 즈릅개……合浦 합개……石浦 돌개……圉仍浦 어싱개……沙浦 브암개……梨浦 비애……三田渡 삼반개[大水有小口別通曰浦]

위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비교해보면, 한자어 浦(포)와 渡(도)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개’ 또는 ‘개’의 변음인 ‘애’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三田渡 삼반개(大水有小口別通曰浦)’에서 ‘개’와 ‘浦(포)’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조선 중종 22년(1527)에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 초간본에서도 “浦(개 보 大水有小口) 漉(개 서 浦也) 港(개 항 汊港水派 又水中行舟道 又藏舟處) 汊(개 차 水歧流)”라고 했다.

2. 볼레낭개 · 벌레낭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을 예로부터 ‘볼레낭개 · 벌레낭개’라 불려왔다. 이것은 이 마을의 개 이름을 ‘볼레낭개’라 부른 데서 연유한 것으로, 마을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보목동의 포구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 현지 조사를 하면 ‘볼레낭개 · 벌레낭개’라는 말에 바로 대응하는 개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목동에는 제지기오름이라 부르는 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 남서쪽 바닷가에 보목동의 주 포구가 있는데, 이곳 일대는 민간에서 ‘베개(배개 · 베들인개: 요즘은 주로 보목 포구라고 부름.)’라 불려왔다. 사람에 따라서는 ‘베개왓 포구’ 베기왓 포구’로도 부른다. ‘베개왓’ 베기왓’은 ‘베개’ 베기’ 가까이 있는 밭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 ‘베개’ 서쪽, 그러니까 제지기오름 서쪽으로 흐르는 정술내 하류 동쪽 일대는 ‘앞개’라 부른다. 정술내 하류 서쪽 바닷가에서 솟아나는 물은 ‘엥개물 · 엥갯물’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앞쪽 바닷가는 ‘엥개’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 ‘엥개물’ 서쪽에 ‘큰개물, 큰개, 큰개머리 · 큰갯머리’라 부르는 지명들이 있으므로, ‘큰개’라는 개



보목동 엥개와 앞개



보목동 큰개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개’ 바로 서쪽 바닷가를 ‘족은개’라 부른다. 이 족은개로 통하는 길을 ‘족은갯길’이라 한다. ‘족은개’ 서쪽에 있는 동산은 ‘족은갯동산’이라 부른다.

‘큰개’ 서남쪽 바닷가에서 바다로 뻗어나간 코지(곶)가 있는데, 이것을 ‘섬도코지 [-또-]’라고 부른다. 이 앞 바다에 있는 섬섬으로 갈 수 있는 도(어귀)로서 코지(곶)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 ‘섬도코지’ 서쪽에 ‘구두밧길, 구두밧동산’ 등으로 부르는 지명이 있고, 이 지명의 바닷가에 ‘구두미’ 또는 ‘구두밧개’라 부르는 개가 있다. 요즘은 ‘구두미 포구’라고도 부르고 있다.

‘구두미동산’ 서쪽은 ‘황개’라 부른다. ‘황개’ 서쪽, 서귀포 하수처리장 동남쪽 바닷가를 ‘스레·스렛개’(사람에 따라서 ‘소리, 소릿개’라고도 부름.)라 부른다. 이 위쪽으로 난 길을 ‘스렛길’이라 부르고, 그 위쪽의 밭을 ‘스레포앗’이라 부른다. 이 ‘스레’도 개다. 주변의 묘비에서는 한자로 似以浦(사이포), 沙伊浦(사이포)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래 *스잇개)*스잇개’로 불렸던 것인데, 나중에 죽은 사람이 떠올



서귀포시 보목동 제지기오름에서 바라본 불레낭개 전경
앞에 보이는 포구가 보목 포구인 벵개(베들인개)이다. 멀리 보이는 것이 섬섬이다.

라오는 곳이라는 데서 死來(사래)로 풀이하면서 고유 지명도 바뀌어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썩섬 서쪽 끝 남쪽에 있는 개를 ‘어렁잇개’라 하고, 이 ‘어렁잇개’ 어귀를 ‘어렁잇갯도’라 부른다. ‘어렁이’는 ‘황놀래기’를 이르는 제죽말로, 이곳에서 어렁이가 많이 난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어렁잇개 튼여’라 부르는 곳도 있다.

또한 ‘베개’ 동쪽, 제지기오름 남동쪽 바닷가를 사람에 따라서 ‘설랑·설렁’ 또는 ‘설랑앞·설렁앞’이라 부르는데, 이 동쪽을 ‘개머리’라 하고, 이 ‘개머리’ 앞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바위를 ‘튼개머리여’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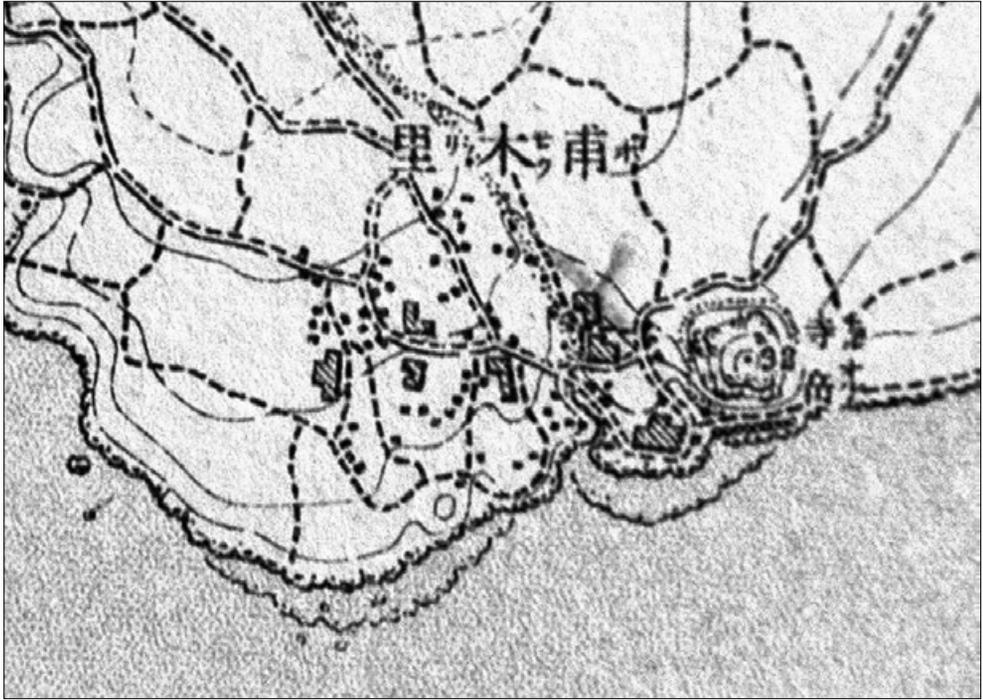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지금 보목동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볼레낭개’를 확인하려는데 어디서도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에는 甫涯木浦(보애목포)로 표기되고,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한라장축(漢拏壯矚)’(1702)에는 甫木浦(보목포)로 표기되어 있다. 甫涯木(보애목)은 제죽말 ‘볼레낭’이나 ‘볼레남’을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고, 甫木(보목)은 甫涯木(보애목)에서 涯(애)를 표기에서 생략해서 쓴 것이다. 浦(포)는 당연히 ‘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볼레낭(볼레남)’은 표준어 ‘볼레나무(보리장나무)’에 대응하는 말이다. 표준어에서 ‘볼레나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근대국어에서는 ‘보리슈남·보류슈남’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1601년에 甫涯木(보애목)으로 표기되었으니, 볼레나무에 대응하는 제죽말 ‘볼레남(볼레낭)’도 꽤 일찍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709년의 <탐라지도(耽羅地圖)>를 보면, 볼레낭개연대 동남쪽 바닷가, 제지기오름 서남쪽, 지금 정술내 하류에 甫木浦(보목포)라 표기하고, 이중의 <南槎日錄(남사일록)>을 보면, 볼레낭개연대를 ‘甫木浦西邊烟臺(보목포서변연대)’라 한 것으로 보아, 애초에는 정술내 하류 일대, 곧 동쪽의 ‘베개’에서부터 서쪽의 ‘큰개’ 일대까지를 ‘볼레낭개’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에 만든 현대식 1대 5만 지형도를 보면, 당시 보목리의 마을은 제지기오름 서쪽, 지금 정술내 하류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볼레낭개’도 당연히 정술내 하류 일대의 개를 일컫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의 보목리 전경

3. 무주애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월정리는 예로부터 ‘무주애’로 불리왔다. 이것은 이 마을의 포구를 일컫는 데서 나온 것이다. ‘무주애’의 ‘애’는 ‘개’에서 첫소리 ‘ㄱ’이 유성음화한 뒤에 아주 탈락한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도 고로층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지명인데도, 장년층이나 젊은 층에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듯하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과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3)에는 지금 월정리에 있는 개를 無注浦(무주포)라 표기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誌)>(1864)에는 無住浦(무주포)로 표기했다. 1899년의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에 들어있는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마을 이름이 武州里(무주리)로 표기되기도 했다.

한자 표기 無注浦(무주포)와 無住浦(무주포)가 예로부터 불리왔던 ‘무주개’를 한자를 빌어 그대로 표기한 것이고, 민간에 전하는 ‘무주애’는 이 ‘무주개’가 소리가 변한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1447)의 예를 보면 梨浦(이포)를 ‘빅애’에 대응하는 표기로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ㄱ’ 두음이 유성음 [ŋ]로 실현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梨浦(이포)에 대응하는 우리말은 ‘빅개’로 실현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발음이 ‘빅애’로 실현된 것이다. 중세국어 당시에는 ‘빅애’의 ‘ㅇ’은 아무런 음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음의 불청불탁음인 자음 음소로 쓰였다.



17세기 말 고지도와 18세기 중반 고지도의 無注浦(무주포)와 無住村(무주촌)

제웃말 ‘무주개’는 ‘무주애’로 변한 뒤에, 곧 둘째 음절 첫소리 ‘ㄱ’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 ‘ㅇ [ŋ]’으로 실현된 뒤에, 나중에는 아예 음가가 없는 소리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무주개)무주애’에 나타나는 ‘무주’의 뜻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현대국어의 ‘무지(무더기로 쌓여 있는 더미. 모래 무지. 자갈 무지)’나 ‘무지(곡식이 완전한 한 섬이 못 되는 것)’ 정도에 대응되는 말일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다.

1910년 전후까지 마을 이름을 無住村(무주촌), 無注浦里(무주포리), 無注里(무주리), 武州里(무주리) 등으로 쓰다가, 이 당시에 이 마을에 살았던 원봉(元峯) 선생이라는 한학자가 풍수설을 활용하여 月汀里(월정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 상의 월정리



현대 인공위성 사진 상의 월정리

4. 당캐

제주도 바닷가에 ‘당캐’라 부르는 곳이 몇 있다. 우선 생각나는 곳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포구이고, 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이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포구이다. 이 두 포구는 예로부터 ‘당캐’라 불려왔고, 지금도 ‘당캐’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식당의 상호를 ‘당캐’로 쓴 곳도 있다.

‘당캐’라는 말은 신당(神堂)을 뜻하는 ‘당(堂)’에 ‘개’가 덧붙여 만들어진 말인데, 실제 발음에서 [당개]로 실현되지 않고 [당캐]로 실현되고 있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사이에 ‘ㅎ’ 소리가 덧붙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선면 표선리 포구 안쪽에는 ‘세명주 할망’을 모시는 ‘해신당(海神堂)’이 있다. 이당을 ‘당캐 해신당’ 또는 ‘당캐 세명주할망당’이라고 부른다.



당캐 세명주할망당



현대 인공위성 사진 상의 표선리 당캐

안덕면 대평리 포구 북동쪽에도 당이 있는데, '닥밭 할망'을 모시기 때문에 '닥밭 할망당' 또는 난드르에서 매달 일뤼에 가는 당이라는 데서 '난드르 일뤼당'이라 부른다. 대평리 당캐 서쪽에는 '당쿨(당쿨)'이라는 지명이 전하고, 개 북쪽 당이 있는 밭은 '당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당캐'는 신당(神堂)과 관련되어 만든 개 이름인데도, 민간에서는 중국 당(唐) 나라와 관련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런 것은 건강부회한 민간어원설로 믿을 수가 없다.



난드르 일뤼당



현대 인공위성 사진 상의 대평리 당캐

5. 마무리

제주도 바닷가에는 '개(浦·浦口)'가 널려있다. 이 '개'를 제춧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나름의 사고와 생각, 사상을 담은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우리 선조의 사상과 사고를 오롯이 담고 있는 무형문화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한자와 한자문화에 경도(傾倒)되어,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제부터라도 차곡차곡 선조들의 사상과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여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 